

#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에 따른

##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

### Relationships among the Elderly's Self-Esteem and Life-Adjustment according to Decision-Making Power in Their Family

지금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Chi, Keum Soo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lderly's self-esteem and life-adjustment according to decision-making power in their family.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and were selected. 296 over age 60 who lived in Jeonju. Frequencies, Percentiles,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and Duncan's method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Decision-making power of the elderly in family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coresiding with married children, and the sum of monthly personal expenses. 2) Elderly's self-esteem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the present job, the situation of a spouse, and the sum of the monthly personal expenses. 3) Elderly's life-adjustment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esidence type, the present job, the situation of a spouse, religion, education, and the sum of the monthly personal expenses. 4) Clothing and food in family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5) The elderly men's self-esteem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housing, sons and daughters guidance, grandchildren care, and family event and etc. But the elderly women's self-esteem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food, grandchildren care, and family event and etc. 6) The elderly men's life-adjustment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clothing, food, housing, family economy, sons and daughters guidance, grandchildren care, and family event and etc. But the elderly women's life-adjustment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food, housing, sons and daughters guidance, grandchildren care, and family event and etc..

**Key words** : Elderly, Self-Esteem, Life-Adjustment, Decision-Making Powe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의학의 발달과 경제발전, 의식구조

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동,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인구의 노령화는 노령층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노인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는 가족의 이동과 더불어 세대간의 분리를 야기시켜 종래의 가부장적 가족 또는 직계가족을 부

---

Corresponding author : Chi, Keum Soo  
Tel. (063) 270-3836, Fax. (063) 270-3839  
E-mail : cks3836@moak.chonbuk.ac.kr

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소형화시켰다. 이에 노인이 가정내의 가부장적 지위에서 탈락되는 상황을 빚어내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은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지위하락 뿐 아니라, 지배와 복종을 가리키는 봉건적 전통사회에서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및 인격형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젊은이들과 갈등 또는 세대적 단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여운경, 1993). 따라서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냉철한 현실에 대처하여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

또한 노인이 가정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약하고, 특히 가정내 경제생활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이옥재, 1980),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노인의 의견은 무시되기도 하며(모선희, 1991, 재인용), 중요한 가정문제의 결정과정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다(오건작, 1991).

이렇듯 고령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불확실해지고 소외되고 있으며 역할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가정내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서 가치 있고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들이 처해있는 개인적·사회적 변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내의 변화들에 대해 적응을 해나가야만 한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족내의 연장자, 가사결정자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가지고 실권자의 위치를 가정일에서 지켜왔다. 남자노인은 가부장적 지위와 역할을 가졌었고 여자노인은 가계의 지위와 가풍전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김애련, 1990). 그러나 기계문명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급변은 지금까지 노인이 가진 장점으로써 존중되어 온 생활의 지혜와 경험을 가정적, 사회적으로 쓸모 없는 것으로 전락시켰고, 노년층에게는 자신의 위치, 권력, 지위 등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변화 및 혼란 속에서 부적응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노인의 지위하락현상은 가정내 권력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가정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노인의 의사결정권 행사에 대한 변

화를 가져오게 되었다(홍기정, 1984). 즉 가정운영의 기능적 변동은 노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권력저하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구(박재간·임춘식, 1983; 모선희, 1991, 오건작, 1991)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제반 가정문제의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전통사회의 노인에 비하여 현대사회의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크게 격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이나 동거기간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하락이나 권력의 상실문제는 구미 선진국의 노인에 비해 더욱 심각할 것이다.

기존의 노인대상 연구들은 노인의 문제를 노인 집단의 단순한 실태조사나 생활만족도, 노인부양, 노인복지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고, 노인의 의사결정권에 근거하여 노인의 자신에 대한 존중이나 생활에서의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남녀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행사 및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어, 노인자신 스스로를 존중하며 생활에의 적응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2)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3) 노인의 생활적응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4)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영역(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경제, 자녀문제, 손자녀 양

육, 가족행사 및 기타)은 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5)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6)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

Deacon과 Firebaugh(1988, p. 63)는 의사결정은 대안의 선택이나 해결을 할 때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가정자원관리 기능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과정이라고 했으며, Rice와 Tucker(1986)는 사람들이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으로서 비록 작은 의사결정이라도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김윤경·임정빈(1983)은 의사결정이란 많은 행동과정 중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관리의 핵심요소이며, 가정관리에 있어서 정신적, 지적 활동으로서 관리 자체의 존재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은 가족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 가족원에게 인간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정내의 의사결정 중, 노인의 가사결정참여에서의 의사결정을 살펴볼 때 이영하(1975)는 노부모의 가사결정권은 자녀부부에 비해 매우 낮으며 노부모와 자녀세대와의 의견을 절충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나타나 대체로 부부가 의사결정을 한 후 노부모의 동의를 얻고 있어서 노인은 종래와는 달리 의존적 지위로 점차 진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여운경(1993)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부양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까지 제공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경우 가정문제에 대한 결정권의 약화와 결정권 행사 기회상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였다.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가정내 의사결정권을 다

룬 국내 및 국외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나 국내의 경우 일반적인 노인에 관한 연구는 노인의 가사결정권이나 역할, 권력, 지위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고, 국외연구는 노인부부중심의 연구(Dorfman & Heckert, 1988, p.76; Dorfman & Hill, 1986), 자녀에게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Pratt, Jones, Shin, & Walker, 1989, pp. 795-796)가 있다. 실제로 행해진 가족내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성원 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이한 역할 및 가족내의 권력구조와 아울러 중요한 사항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가족 내에서 결정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노인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스스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노인 자신이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박재간·임춘식, 1983). 여운경(199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도는 젊은 자녀부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자립적인 노인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더욱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주은(199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고 건강이 좋을수록,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행사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출산율의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기혼자녀를 둔 노부모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독립시기에 있는 60대의 노인 같은 자원을 소유한 권력있는 노부모가 가정내 거주하는 현실로 인해 노부모는 의사결정행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2.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

#### 1)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자신에게 하는 평

가로서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며 개개인의 환경에서 중요한 타인들, 부모, 교사, 친구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Coopersmith, 1967), 인간을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감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Rosenberg(1979)는 자아개념을 자기자신을 한 대상으로 여길 때 자기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의지와 감정의 총체라고 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나 자기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오만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James(1890)는 자아문제를 제기하였고 자아를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을 욕구나 기대에 대한 성공의 비율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나 영역의 성취가 높을 때 높아진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Steffenhagen(1987)은 교육의 영역에서 성공, 격려, 지원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며, Akin et al.(1990)은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환경과 내적 발달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며, 행동 속에 표출되어진다고 하였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Ward(1977)는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은 교육이나 수입이며, 여자노인은 역할변화와 현재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즉 은퇴나 건강문제,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한 생활 및 역할 변화가 일어날 때 자기 이미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Bengtson, Ready, & Gorden, 1985). 또한 여윤경(1993)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자원과 가족환경적 자원 중에서 특히 노인의 경제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변해 주는 변수들과 매우 관계가 있으며 복지감과 관련된 차원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 2) 노인의 생활적응

적응이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말한다. Herzog와 Rodgess(1981)는 노인들의 심리적인 적응과정의 결과로서 생활만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심리적인 적응에는 적응의 동기로서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원만한 노년기의 생활적응에 관하여 Havighurst(1962)는 1) 체력과 건강의 쇠퇴기에 대한 적응, 2) 은퇴와 감소된 수입에 대한 적응, 3)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적응, 4) 동년배 집단과 친근한 관계유지, 5) 사회적·시민적 의무의 감당, 6) 안락한 생활의 정돈 등을 들고 있다(서병숙, 1991, pp. 86-87, 재인용).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개인적, 상황적 요구들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 여러 생활상의 문제들이나 우울감등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생활적응은 자기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즉 자기자신에 대해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것과 변화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이영은, 1990).

노년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Clark와 Anderson(1967)은 노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고령화에 대한 인지와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감소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노년기에 처한 자신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 활동범위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의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개인생활의 욕구만족을 위해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 넷째는 자아평가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자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로는 자신의 인생관과 목적의식을 재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년기에 맞는 인생의 목적을 재확인하거나 정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노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이미지나 정체감을 재확립함으로써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 말년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적응은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노년기의 적응은 물리적 환경보다도 내적 만족에 의하여 더욱 더 좌우된다(오경

숙, 1990).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오늘의 성인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주령·김명자(1991)는 노인적응에 관련된 배경변인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경제적으로 자녀에 의해 도움을 받는 여자노인이 노년기 적응이 좋다고 하였고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노년기 가족관계는 적응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오경숙(1990)은 노인의 활동정도가 많을수록 적응수준이 높고 특히 친밀활동과 단체활동이 노후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 3.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과의 관계

노인의 의사결정권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이 부부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며, 인간중심적인 의사결정이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임정빈, 1988). 한임섭(1987)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가정내의 의사결정권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나,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가정생활에 대한 그들의 권한을 포기한 채 자녀들에게 부양받고 있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송주은(1993)의 연구에서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노인을 중심으로 행사될 경우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여윤경(1993)의 연구에서 볼 때 노인의 의사결정권 유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노인은 자신의 삶과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므로 의사결정을 비롯한 제반 가정생활에서 적극성

을 띠는다고 하였다. Rice와 Tucker(1986)는 자아존중감은 의사결정자의 행동과 관계가 있어 현실주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생활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은 사고를 막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을 연결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69세 남녀노인이며 전주시 28개동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에 비례하여 할당표집방법<sup>1)</sup>에 의해 선별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9년 5월 24일~5월 29일까지 전주시 거주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분석 후 설문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3명의 훈련받은 대학원생이 1999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조사를 개별면접 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와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29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1) 전주시 통계연보(1998)를 참고로 하여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69세 노인의 1% 인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1997년 12월 31일의 기준 자료이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사회인구학적변인	성	남자	127(42.9)	가족형태	아들가족과 산다(기혼자녀와 동거)	64(21.8)
		여자	167(57.1)		딸 가족과 산다( " )	11( 3.7)
	직업	단순직	23( 7.8)		혼자서 산다(기혼자녀와 별거)	23( 7.8)
		중급직	42(14.2)		배우자와만 산다( " )	102(34.7)
		전문직	11( 3.7)		미혼자녀와 산다( " )	90(30.6)
		무직	219(74.2)		손자녀 또는 친척과 산다( " )	4( 1.3)
	학력	무학	26( 8.8)		배우자	유
		한학이나 서당	5( 1.7)	무		68(23)
		국졸(국퇴)	90(30.5)	주거유형	아파트	109(36.8)
		중졸(중퇴)	52(17.6)		주택	187(63.2)
		고졸(고퇴)	71(24.1)		한달용돈	10만원미만
	전문대졸이상	51(17.3)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51(18.1)		
	종교	무종교	75(25.5)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61(21.7)
		개신교	107(36.4)	30만원이상~40만원미만		62(22.1)
		천주교	42(14.3)	40만원이상~50만원미만		17( 6.0)
불교		60(20.4)	50만원이상	73(26.0)		
원불교		8( 2.7)	따로 없다	1( 0.4)		
유교		2( 0.7)				

## 2. 측정도구

### 1)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 측정도구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을 측정하기 위해서 송주은(1993), 여윤경(1993), 유주희(1993)등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가정내 의사결정권 영역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경제, 자녀문제, 손자녀양육, 가족행사 및 기타 등의 7개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7개 영역의 문항 구성을 위해서 자료수집(면접, 각종 자료)을 실시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의생활 2문항, 식생활 3문항, 주생활 3문항, 가정경제 3문항, 자녀문제 4문항, 손자녀양육 3문항, 가족행사 및 기타 5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내가 결정한다' 3점, '때때로 내가 결정한다' 2점, '전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1점이며, 7개 하위영역의 점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하위영역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권은 각 하위영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권의 각 하위영역의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를 산출한 결과, 의생활 .71, 식생활 .64, 주생활 .72, 가정경제 .71,

자녀문제 .55, 손자녀양육 .81, 가족행사 및 기타 .62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권은 .83으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은 이영자(1996)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긍정형 6문항(1, 2, 4, 6, 8, 10번)과 부정형 4문항(3, 5, 7, 9번)으로 총 10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긍정형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며, 부정형 문항은 이를 역산하여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의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를 산출한 결과 .79로 나타났다.

### 3) 생활적응 측정도구

노인의 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숙(1990)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생활적응 영역을 개인생활적응, 가족생활적응, 사회생활적응 등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7문항씩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모두 긍정형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적응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적응의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를 산출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 t-test, ANOVA, Duncan's method,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차이

<연구문제 1>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p<.01), 한 달 용돈(p<.01),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p<.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표 2>.

성의 경우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가정내 의사결정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달용돈은 10만원미만 집단보다 40만원이상~50만원미만 집단과 50만원이상 집단의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성이 의사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달용돈액이라는 경제적 지지를 가진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에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연구문제 2>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성(p<.05), 직업(p<.001), 배우자 유무(p<.05), 한달용돈(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각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의 경우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단순직과 무직의 집단에 비해 중급·전문직 노인의 자아존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차이

변인	구분	평균/D	F / t값	변인	구분	평균 / D	F / t값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남	1.88	-3.063**	주거 유형	아파트	1.92	-0.683
		여	1.99			주택	1.95	
	직업	단순직	2.02	1.474	기혼자녀와의 동거 여부	동거	1.86	-2.691**
		중급·전문직	1.99			별거	1.97	
무직		1.92						
종교	유무	1.96 / 1.89	1.732	배우자	유무	1.95 / 1.91	0.751	
화력	무화 국졸(서당과 한학포함) 중졸(중퇴) 고졸(고퇴) 전문대졸 이상	1.92	0.312	한달 용돈	10만원미만	1.74 A	4.073**	
		1.9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85 AB		
		1.9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93 BC		
		1.96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1.91 BC		
		1.97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2.05 C		
					50만원 이상	2.04 C		

\*\* p<.01 D : Duncan's method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변인	구분	평균 / D	F / t값	변인	구분	평균 / D	F / t값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남	3.68	2.352*	주거 유형	아파트	3.62	0.507
		여	3.54			주택	3.59	
	직업	단순직	3.53 A	8.015***	기혼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	3.60	0.106
		중급·전문직	3.85 B			별거	3.60	
		무직	3.55 A					
	종교	유	3.61	1.002	배우자	유	3.64	2.521*
		무	3.54			무	3.46	
	학력	무학	3.59	0.955	한달용돈	10만원미만	3.28 A	3.515**
		국졸(서당과 한학포함)	3.59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3.55 B	
		중졸(중퇴)	3.57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49 AB	
고졸(고퇴)		3.54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3.69 B		
전문대졸 이상		3.72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64 B		
						50만원 이상	3.73 B	

\* p<.05 \*\* p<.01 \*\*\* p<.001 D : Duncan's method

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달용돈은 10만원미만 집단보다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집단, 30만원이상 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배우자가 있어 같이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사별이나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동거하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여윤경(199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한달용돈은 10만원미만 집단보다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집단, 30만원이상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어 용돈이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여윤경(199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생활적응의 차이

〈연구문제 3〉 노인의 생활적응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노인의 생활적응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주거유형(p<.05), 직업(p<.001), 배우자 유무(p<.001), 종교유형(p<.01), 학력(p<.001), 한달용돈(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

각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유형의 경우 아파트 거주노인이 주택 거주 노인보다 생활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단순직과 무직의 집단에 비해 중급·전문직 노인의 생활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직업지위는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태현(1986)과 오경숙(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생활적응수준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의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난 오경숙(1990)의 연구와 일치하며, 노년기는 그 어느 가족주기보다 부부관계와 동료감이 중요한 시기로 홀로된 노인은 함께 살면서 느끼지는 인생의 의미, 목표들을 얻기 어려우므로 적응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가 있는 노인의 생활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의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태현(1994)과 김명자(198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학력은 무학 집단에 비해 고졸이상 집단의 생활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상 집단보다 전문대졸이상 집단의 생활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남표(1979)

<표 4>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노인의 생활적응의 차이

변인	구분	평균 / D	F / t값	변인	구분	평균 / D	F / t값	
사회인구학적변인	성	남	3.84	1.353	주거 유형	아파트	3.88	2.084*
		여	3.76			주택	3.75	
	직업	단순직	3.66 A	12.019***	기혼 자녀와의 동거 여부	동거	3.74	-1.207
		중급·전문직	4.09 B			별거	3.82	
		무직	3.74 A					
	종교	유	3.85	2.942**	배우자	유	3.86	3.866***
		무	3.65			무	3.59	
	학력	무학	3.61 A	5.288***	한달 용돈	10만원미만	3.40 A	8.614***
		국졸(서당과 한학포함)	3.71 AB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3.66 B	
		중졸(중퇴)	3.77 AB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68 B	
고졸(고퇴)		3.83 B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3.80 B		
전문대졸 이상		4.05 C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86 BC		
						50만원 이상	4.07 C	

\* p<.05 \*\* p<.01 \*\*\* p<.001 D : Duncan's method

<표 5> 성에 따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 하위영역의 차이

변인		성	평균	t값	변인	성	평균	t값
가정내 의사결정권 영역	의생활 영역	남	2.34	-6.763***	자녀문제영역	남	1.65	.622
		여	2.74			여	1.62	
	식생활 영역	남	1.51	15.923***	손자녀 양육영역	남	1.52	.630
		여	2.36			여	1.49	
주생활 영역	남	2.08	1.727	가족행사 및 기타	남	2.02	-1.254	
	여	1.96			여	2.07		
가정경제 영역	남	2.10	1.357					
	여	2.00						

\*\*\* p<.001

와 오경숙(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 달 용돈은 10만원미만 집단보다 20만원이상 집단이, 40만원미만 집단보다 50만원이상의 집단이 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가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Medley(1977)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다.

#### 4. 성에 따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 하위영역의 차이

<연구문제 4>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영역(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경제, 자녀문제, 손자녀양육, 가족행사 및 기타)은 성에 따라서 차이

가 있는가?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 영역 중 의생활 영역은 성(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식생활 영역은 성(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이는 여자노인은 남자노인보다 가정내 의사결정권 중 의생활과 식생활에서 의사결정권을 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5>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표 6〉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가정내 의사결정권 하위영역		의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	주생활 영역	가정경제 영역	자녀문제 영역	손자녀 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
자아 존중감	남자	.080	.142	.224*	.162	.267**	.197*	.199*
	여자	.025	.190*	.068	.052	.111	.168*	.155*

\* p&lt;.05 \*\* p&lt;.01

〈표 7〉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가정내 의사결정권 하위영역		의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	주생활 영역	가정경제 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 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
생활 적응	남자	.186*	.191*	.203*	.188*	.460***	.288**	.247**
	여자	.014	.272***	.209**	.116	.346***	.305***	.287***

\* p&lt;.05 \*\* p&lt;.01 \*\*\* p&lt;.001

남자노인의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권 영역 중 주생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영역 중 식생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표 6>.

이는 남자노인의 경우 주생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에 의사결정권을 많이 행사하는 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식생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에 의사결정권을 많이 행사하는 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노인은 자신의 삶과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므로 의사결정권을 비롯한 제반 가정생활에서 적극성을 띤다고 한 여운경(1993)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 6.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6>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남자노인의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권 영역 중 의생활영역, 식생활영역, 주생활영역, 가정경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

타영역과 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하위영역 중 식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과 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7>.

이는 남자노인의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권 중 의생활영역, 식생활영역, 주생활영역, 가정경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많이 행사하는 노인일수록 생활적응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하위영역 중 식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많이 행사하는 노인일수록 생활적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의 증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송주은(1993)의 연구와 유사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영역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첫째,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 한달용돈은 10만원미만 집단보다 40만원이상~50만원미만 집단과 50만원이상 집단,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성이 의사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달용돈액이라는 경제적 지지를 가진 노인의 의사결정권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노인이 가정내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용돈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립 능력에 따라서 노인의 의사결정권의 수준에 차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 단순직과 무직의 집단보다 중급·전문직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한달용돈은 10만원미만 집단보다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집단, 30만원이상 집단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 직업, 배우자 유무, 한달용돈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자아존중감 증진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주택 거주 노인보다 아파트 거주 노인, 단순직과 무직의 집단에 비해 중급·전문직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종교가 있는 노인, 한달용돈은 10만원미만 집단보다 20만원이상 집단이, 40만원미만 집단보다 50만원이상의 집단 노인의 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의 경우 아파트 거주노인이 주택 거주 노인보다 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것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아파트의 생활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의 편리함으로 인해 생활적응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의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노년기는 그 어느 가족주기보다 부부관계와 동료감이 중요한 시기로 홀로된 노인은 함께 살면서 느끼는 인생의 의미, 목표들을 얻기 어려우므로 적응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의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노년기의 신앙생활은 노인의 고독이나 고립감을 완화시켜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생

활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증가로 사회적 지위를 증대·유지시킬 수 있어 노인의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거유형, 직업, 배우자 유무, 종교유무, 학력, 한달용돈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변인으로 생각된다.

넷째,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가정내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의 의사결정권을 주로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남녀노인의 가정내에서의 역할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남자노인의 경우, 주생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에 의사결정권을 많이 행사하는 노인일수록, 여자노인의 경우, 식생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에 의사결정권을 많이 행사하는 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노인은 자신의 삶과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므로 의사결정권을 비롯한 제반 가정생활에서 적극성을 띤다고 한 여운경(1993)의 연구를 지지해주며 각 각 나타난 영역들이 남자노인,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여섯째, 남자노인의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권 중 의생활영역, 식생활영역, 주생활영역, 가정경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 여자노인의 경우,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하위영역 중 식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자녀문제영역, 손자녀양육영역, 가족행사 및 기타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많이 행사하는 노인일수록 생활적응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의 대부분이 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노인인 부모님을 가정경영에 참여하시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위 결론을 토대로 노년기에 일반적인 활동범위의 축소와 함께 관심영역과 접촉영역이 가족과 자녀에게로 집중되므로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 및 생활적응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된다고 보며,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관리적 차원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가정생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의사결정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내 의사결정권을 측정하는 척도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부간의 의사결정행동 연구와 여자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남녀노인에게 알맞도록 영역별로 수정·보완하였다. 그러나 좀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교한 척도와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의사결정권의 연구와 이러한 의사결정권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생활적응의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자료는 노인자신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또는 자신의 입장을 과장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녀와 노인이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다양한 조사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노인, 자아존중감, 생활적응, 의사결정권

## 참 고 문 헌

- 강주령·김명자(1991).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195.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애련(1990). 노인의 가정내 지위와 역할.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1983).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임정빈(1983).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3), 115-130.
- 김태현(1986).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성신연구논문, 2.
-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모선희(1991). 가족내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 한국노년학, 11(1), 50-60.
- 박재간·임춘식(1983). 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서병숙(1991). 노인연구. 서울 : 교문사.
- 송주은(1993).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윤경(1993). 노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건작(1991). 도시노인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1990). 활동중심으로 한 노후적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주희(1993). 도시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남표(1979). 한국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 아산문화재단.
- 이영은(1990).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재(1980). 한국도시노인에 관한 일 연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형식 및 가정생활 만족-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임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기정(1984). 노인문제와 가정. 국회보, 216, 139-146.
- Akin, T., Cowan, D., Dunne, G., Palomares, S., Schilling, D., & Schuster, S.(1990). The best self-esteem activities : For the elementary grad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 Service No. ED 346-359).
- Clark, M. & Anderson, B.(1967). Culture and Aging,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Bengson, V. L and N. E. Cutler(1976).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 By R. M. Binstock and E. Shanas, Hillsdale, N. J: Van Nostrand Reihold Co.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 Deacon, R. E. and Fr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Dorfman, L. T. & Hill, E. A.(1986). Rural Housewices and Retirement : Joint Decision Making Matters. Family Relations, Vol. 35, 507-514.
- Dorfman, L. T. & Heckert, D. A.(1988). Eg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 Houeshold Tasks, Decision Making and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
- 37(1), 73-78.
- James, W.(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Medley, M. L.(1977). Marital Adjustment in the Postretirement Years, The Family Coordinator.
- Pratt, C. C., Jones, L. L., Shib, H. and Walker, A. J.(1989). Autonomy and Decision Making Between Single Older Women and Their Caregiving Daughters. The Gerobtologist, 29(6), 792-797.
- Rice, A. M and S.M. Tucker(1986). Family Life Managment. New York : Macmillan Pub. Co.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teffenhagen, R. A.(1987). Self-esteem : A model.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97 204).
- Ward, R. A(1979). The Meaning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42, 438-445.